

ISSN: 2800-051X

HankookResearch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제340-1호)

# 여론속의 여輿론論

기획: 흡연 행태의 변화와 인식 차이 비교 -  
금연 정책,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2025. 7. 23.

담당자 성현정 한국리서치 본부장

전화 | 02-3014-0168

e-mail | hjseong@hrc.co.kr

#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 한국리서치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자체 조사입니다.
- 격주로 시행하는 정기조사입니다.
- 특정 의제를 다각도로 조사하고 분석하는 심층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의 현상과 함께 흐름을 추적하고, 여론 속의 민심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 정기지표-기획조사 등으로 구성합니다.
- 정기지표는 국가, 사회, 개인과 관련한 국민들의 인식 추이를 제시합니다.
- 기획조사는 한국리서치 연구원이 기획하고 분석합니다. 주제에 따라 외부 전문가와 함께 기획하고 분석 및 보도를 함으로써, 여론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에디터들에게 문의하여 주십시오.

## 운영책임

이동한 수석연구원

전화 | 02-3014-1060  
e-mail | dhlee@hrc.co.kr

## 연구진

이소연 연구원

전화 | 02-3014-1062  
e-mail | lee.sy@hrc.co.kr

## 저작권 정책

---

- 본 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텍스트, 차트 및 그래프)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별도의 저작권 표시 또는 다른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주)한국리서치에 저작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무단 복제,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 제136조의 지적재산권침해죄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는 (주)한국리서치가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물입니다. 출처를 명기하지 않고 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므로 위 행위자에 대해 해당 법률에 따른 조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로 연결되도록 링크하는 것은 허용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출처는 반드시 명기하여야 합니다.
- 보도, 연구, 교육 등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익적 목적을 위해 본 보고서를 인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용은 저작물의 일부분에 한정되어야 하며, 전체 내용의 10% 이상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저작권 침해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영리 목적 없이 개인적으로 이용할 경우에는 복제가 가능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로 수익을 얻거나 이에 상응하는 혜택을 누리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한국리서치와 사전에 별도의 협의를 하거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협의 또는 허락을 얻어 자료의 내용을 게재하는 경우에도 출처가 (주)한국리서치임을 반드시 명시하여야 합니다.
- 본 보고서의 콘텐츠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단순한 오류 정정 이외에 내용의 무단변경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형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러두기

---

- 본 리포트의 데이터는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정수로 표기하였으므로, 보고서 상에 표기된 값의 합이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복수응답 문항의 빈도는 그 합이 10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 응답 사례 수가 적은 경우 해석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흡연 행태의 변화와 인식 차이 비교 - 금연 정책, 정교한 설계가 필요하다



## 주요 결과

- 질병관리청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전체 흡연율은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50대 남성(42.1%)과 20대 여성(12.1%)의 흡연율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담배 사용자 비율은 5.1%에서 8.7%로 급증하였으며, 실내 간접흡연 노출률도 다시 상승세를 보여 직장(8.0%)과 공공장소(8.6%)에서의 간접흡연 피해 문제가 재조명되고 있다.
- 이처럼 세대별, 성별 흡연 행태가 다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담배회사를 상대로 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손해배상 소송 등 흡연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논의도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리서치 <여론 속의 여론>팀은 2025년 6월 13일 ~ 16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흡연 행태와 인식, 금연 정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 현재 흡연자 비율은 전체의 21%로, 과거 흡연 경험자 22%를 포함하면 10명 중 4명이 흡연 경험이 있다. 남성, 4050세대 중장년층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흡연 시작 평균 연령은 22세이며, 성별로는 남성 21세, 여성 25세로 여성의 흡연 시작이 평균적으로 늦다. 전체 응답자 중 18%가 만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으며, 18~29세 10명 중 3명(29%)은 10대 시절부터 흡연을 시작했다.
- 현재 흡연자의 26%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여성 흡연자와 50대 흡연자 3명 중 1명은 흡연으로 인한 건강문제를 경험했다. 고졸 이하, 저소득층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일수록 흡연으로 인한 건강 이상 경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 금연이 어려운 이유로는 ‘오랜 기간 습관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으며, ‘니코틴 중독’(48%), ‘금연 의지 부족’(47%), ‘스트레스 해소 수단’(43%) 순이다. ‘니코틴 중독’을 끊은 비율은 비흡연자(53%)가 흡연자(27%)보다 2배 가량 높고, ‘금단 증상’이라는 응답도 비흡연자(40%)가 흡연자(26%)보다 14%포인트 높다.
- 전체 응답자의 86%는 흡연을 중독으로 인식하며, 80%는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흡연이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5%, 직장에서 생산성 저하 요인이 된다는 응답도 61%이다.
- 앞으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금연 정책으로는 ‘금연구역 확대’가 48%로 가장 높으며, ‘전자담배 규제 강화’(42%), ‘담배 가격 인상’(38%),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36%), ‘금연 캠페인 확대’(28%) 순이다. 흡연자는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가 58%로 가장 높은 반면, 비흡연자에서는 ‘금연구역 확대’가 52%로 가장 높다.

# 1 흡연 행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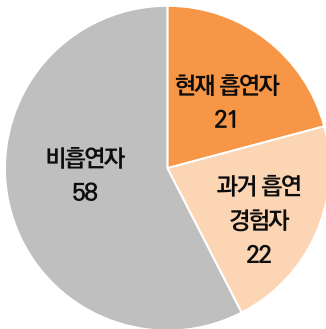
## 현재 흡연자 비율 21%, 남성·중장년층 비중 높아 전자담배 사용 증가, 여성과 청년층 중심

현재 흡연자 비율은 전체의 21%로, 과거 흡연 경험자 22%를 포함하면 10명 중 4명 가량이 흡연 경험이 있다. 특히 남성의 흡연율(33%)은 여성(9%)보다 3.6배 높고, 40대(31%)와 50대(28%)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재 사용 중인 담배 종류로 일반(연초) 담배가 72%로 가장 많으며, 껍련형 전자담배(37%), 액상형 전자담배(12%)가 뒤를 잇는다. 껍련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남성(34%)보다 여성(45%)에서 높으며, 30대(46%)와 40대(44%)에서 높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도 20대(44%)와 여성(19%)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이는 전통적 일반(연초) 담배 사용 비중이 여전히 높지만, 여성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전자담배 사용이 확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단위: %)

### 현재 흡연자 비율 21% 남성·4050세대 중장년층에서 흡연을 높아

흡연 상태



성별, 연령별 흡연 상태

	사례수 (명)	현재 흡연자	과거 흡연 경험자	비흡연자
전체	(1,000)	21	22	58
성별				
남자	(495)	33	34	33
여자	(505)	9	10	81
연령				
18-29세	(153)	18	7	75
30대	(150)	20	17	63
40대	(173)	31	20	48
50대	(195)	28	20	52
60대	(178)	16	30	54
70세 이상	(151)	9	35	57

질문: 현재 담배를 피우고 계십니까? 아니면 비흡연자이십니까?

응답자 수: 1,000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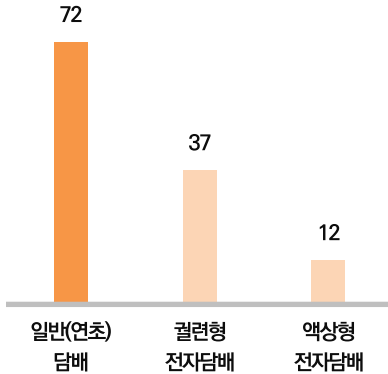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사용 담배 종류, 일반(연초) 담배가 72%로 가장 높아 꺾련형 전자담배 37%, 액상형 전자담배 12% 순

(단위: %)

흡연 담배 종류



성별, 연령별 흡연 담배 종류

현재 흡연자		사례수 (명)	일반(연초) 담배	꺾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		(208)	72	37	12
성별	남자	(163)	76	34	10
	여자	(45)	57	45	19
연령	18~29세	(28)	57	38	44
	30대	(30)	64	46	24
	40대	(54)	69	44	7
	50대	(55)	82	31	2
	60대	(28)	81	26	3
	70세 이상	(13)	75	34	0

질문: 그렇다면, 현재 어떤 종류의 담배를 피우시나요? 모두 응답해 주세요.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현재 흡연자 208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흡연 시작 평균 연령 22세, 흡연자 4명 중 1명은 10대 흡연 시작 청년층, 전자담배로 흡연 시작 비율 높아

현재 흡연자 및 흡연 경험자(424명)의 흡연 시작 평균 연령은 22세이다. 성별로는 남성 21세, 여성 25세로 여성의 흡연 시작이 평균적으로 늦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여성 흡연자의 28%가 만 30세 이후에 흡연을 시작했다는 점이다. 남성 중에서는 5%만이 만 30세 이후 흡연을 시작했다고 답한 것과 비교하면, 여성의 흡연은 사회생활의 후반기 또는 중년 이후에 시작되는 경향이 두드러진다. 반면 현재 흡연자 중 청소년 시기 흡연 진입도 적지 않다. 전체 응답자 중 18%가 만 18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했으며, 18~29세 10명 중 3명(29%)은 10대 시절부터 흡연을 시작했다.

최초 흡연 시 사용한 담배 종류로는 일반(연초) 담배가 93%이다. 여성이 전자담배로 처음 흡연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13%(꺾련형 8%, 액상형 5%)로 남성 6%(꺾련형 5%, 액상형 1%)보다 높으며, 18~29세 응답자 중 14%(꺾련형 9%, 액상형 5%)가 전자담배로 첫 흡연을 시작했다. 최초 흡연 시 일반(연초) 담배 사용 비중이 90% 이상으로 높으나, 일부 청년층과 여성층을 중심으로 전자담배가 첫 흡연 진입 경로가 되는 것으로 분석된다.

흡연 시작 평균 연령은 22세, 남성은 21세 여성은 25세... 18%는 만 18세 이전 흡연 시작 18%  
최초 흡연 시 사용한 담배 종류로는 일반(연초) 담배 93%  
여성과 18-29세에서 전자담배로 첫 흡연을 시작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아

(단위: %)

현재 흡연자 및 과거 흡연 경험자	사례수 (명)	흡연 시작 나이						최초 흡연 담배 종류		
		만 18세 이전	만 19세	만 20세	만 21- 29세	만 30세 이후	평균(세)	일반(연초) 담배	결련형 전자담배	액상형 전자담배
전체	(424)	18	8	31	32	10	22	93	5	2
성별										
남자	(330)	19	10	32	33	5	21	95	5	1
여자	(94)	12	3	28	29	28	25	87	8	5
연령										
18-29세	(38)	26	3	25	46	0	21	86	9	5
30대	(56)	18	7	39	33	4	21	90	7	3
40대	(89)	19	9	37	29	8	21	94	2	3
50대	(93)	13	12	30	33	12	23	98	1	1
60대	(82)	20	9	31	28	12	23	93	7	0
70세 이상	(66)	15	8	24	34	19	24	90	10	0

질문: 흡연 시작 나이 - 처음 담배를 피우기 시작한 나이는 몇 살이었습니까?  
최초 흡연 담배 종류 - 처음 담배를 피웠을 때 어떤 종류의 담배를 피우셨나요?

응답자 수: 현재 흡연자 및 과거 흡연 경험자 424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2 흡연과 신체·정신 건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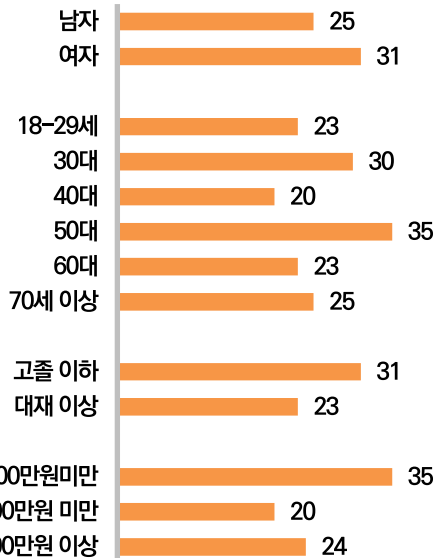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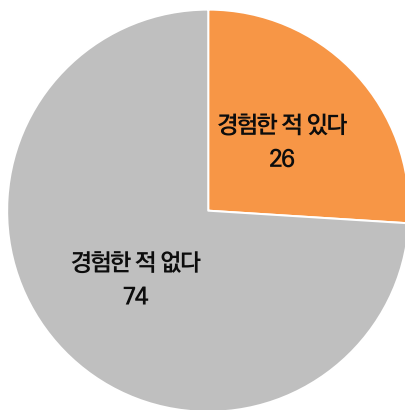
### 흡연자 4명 중 1명, 건강 이상 경험

### 여성·50대 중년층·저소득층에서 건강 이상 경험 비율 높아

현재 흡연자의 26%가 흡연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 여성 흡연자의 31%가 건강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여 남성(25%)보다 많고, 50대 흡연자 중에서는 35%가 건강 문제를 경험했다. 고졸 이하(31%), 저소득층(월 300만원 미만, 35%) 등 사회경제적 취약 계층일수록 흡연으로 인한 건강 이상 경험 비율이 높다.

(단위: %)

흡연자 4명 중 1명, 흡연으로 인한 건강 이상 경험한 적 있어  
여성(31%)과 50대(35%)에서 건강 이상 경험율이 높아



질문: 귀하는 흡연으로 인한 건강 이상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응답자 수: 현재 흡연자 208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응답자의 94%가 흡연이 신체 건강에 해롭다고 인식하고 있고, 70%는 정신 건강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10명 중 9명은 폐암(93%), 후두암과 구강암(각 89%)이 흡연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며, 10명 중 8명(79%)은 심장병과 뇌졸중을, 10명 중 6명(63%)은 췌장암이 흡연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또한 흡연이 중독 및 의존증을 유발 또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응답이 88%이고, 과반 이상이 집중력 저하(68%), 충동조절 장애(64%), 수면장애(64%), 불안(63%)을, 절반 이상이 우울감(57%), 스트레스 증가(57%)가 흡연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흡연자가 비흡연자와 비교하여 흡연이 신체와 정신 건강에 유해하다는 인식이 낮으며, 흡연과 질병의 연관성에 대한 인식 역시 낮은 경향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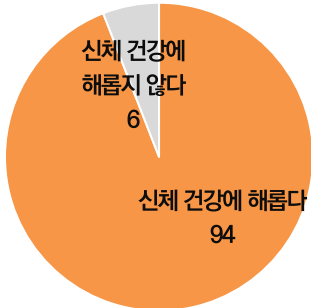


**흡연, 신체 건강에 해롭다 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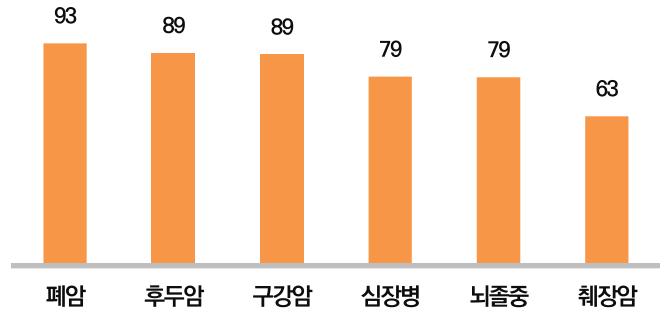
(단위: %)

**10명 중 9명이 흡연과 폐암, 후두암, 구강암 관련성 인식하고 있어**

흡연의 신체 건강 유해성 인식



질환별 흡연 관련성 인식



질문: 흡연의 신체 건강 유해성 인식 -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질환별 흡연 관련성 인식 - 귀하는 흡연이 다음과 같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관련 있다(매우+다소 관련 있다), 관련 없다(전혀+별로 관련 없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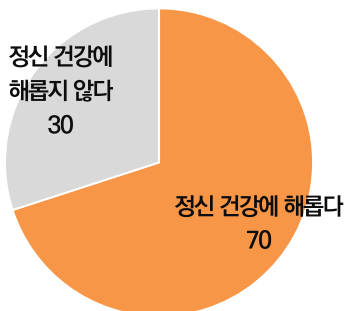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흡연, 정신 건강에 해롭다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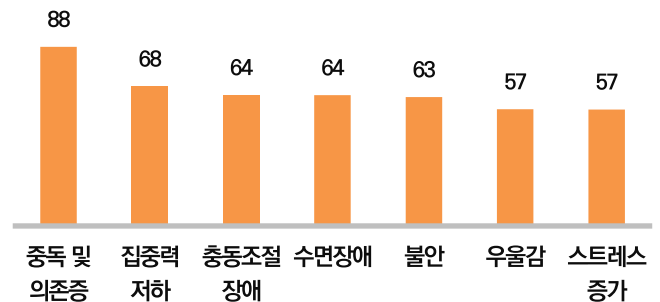
(단위: %)

**중독 및 의존증과 관련 있다는 응답이 88%로 가장 높아**

흡연의 정신 건강 유해성 인식



질환별 흡연 관련성 인식



질문: 흡연의 정신 건강 유해성 인식 - 흡연이 정신건강(불안, 우울, 스트레스 등)에 해롭다고 생각하십니까?

질환별 흡연 관련성 인식 - 귀하는 흡연이 다음과 같은 정신건강 문제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고: 관련 있다(매우+다소 관련 있다), 관련 없다(전혀+별로 관련 없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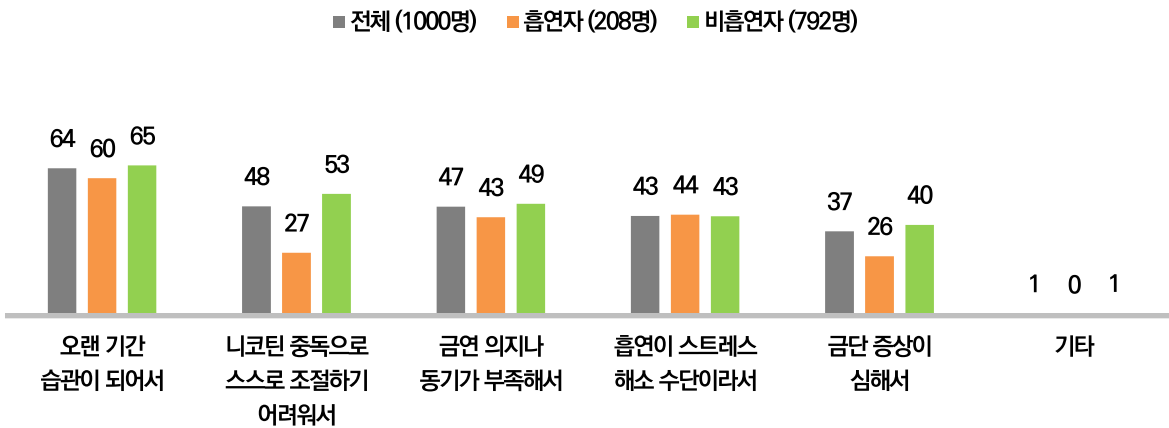
### 3 금연 인식과 경험

#### 금연이 어려운 이유, '오랜 습관이 되어서' 금연의 가장 큰 장애물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니코틴 중독'과 '금단 증상' 등 신체적·생리적 중독에 대한 인식 차이 있어

금연이 어려운 이유로는 '오랜 기간 습관이 되어서'라는 응답이 64%로 가장 많으며, '니코틴 중독'(48%), '금연 의지 부족'(47%), '스트레스 해소 수단'(43%) 순이다. 습관이나 의지, 스트레스 해소 등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응답이 유사하나, 신체적·생리적 원인에 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에 인식 차이가 존재한다. '니코틴 중독'을 꼽은 비율은 비흡연자(53%)가 흡연자(27%)보다 2배 가량 높고, '금단 증상'이라는 응답도 비흡연자(40%)가 흡연자(26%)보다 14%포인트 높다.

금연이 어려운 이유, '오랜 기간 습관이 되어서' 64%  
'니코틴 중독으로 스스로 조절하기 어려워' 흡연자 27% vs 비흡연자 53%

(단위: %)



질문: 귀하가 생각하시기에 흡연자의 개인적인 요인 중 금연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모두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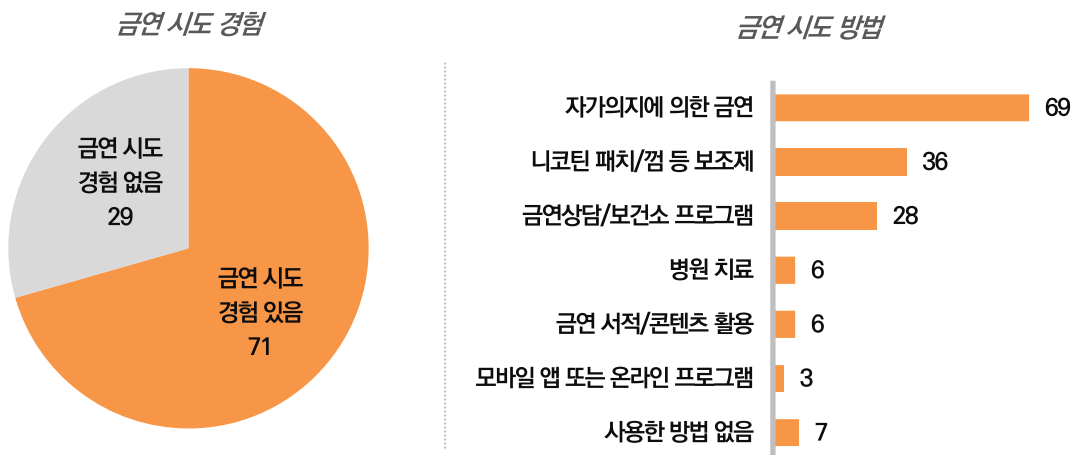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흡연자 10명 중 7명, 금연 시도 경험 있어 '자가의지에 의존하는 금연 방식', 69%로 가장 많아

현재 흡연자 중 71%는 금연 시도 경험이 있다. 금연 시도 방법으로는 '자가의지에 의한 금연'이 69%로 가장 많다. 니코틴 패치나 껌 등 보조제는 36%, 보건소 프로그램은 28%에 불과하며, 병원 치료, 금연 콘텐츠·앱 활용 등은 6% 내외로 낮다. 성별로 보면 여성은 자가의지에 의한 금연 비율이 78%로 남성(67%)보다 높으며, 금연 서적이나 콘텐츠 활용도 여성(14%)이 남성보다 높다.

현재 흡연자 중 금연 시도 유경험자는 71%  
금연 방법으로는 '자가의지에 의한 금연'이 69%로 가장 많아

(단위: %)



질문: 금연 시도 경험 - 금연을 시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금연 시도 방법 - 귀하는 금연을 위해 다음 중 어떤 방법을 사용해 보셨습니까?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비고: 금연 시도 경험은 복수응답

응답자 수: (금연 시도 경험) 현재 흡연자 208명 // (금연을 위해 시도한 방법) 금연 시도 경험자 147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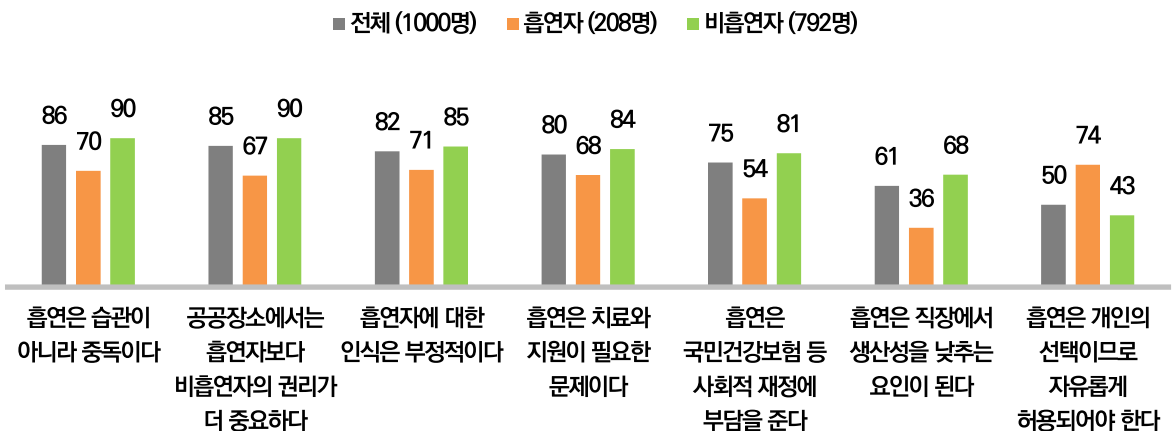
## 10명 중 9명, 흡연을 중독으로 인식 흡연은 사회 재정에 부담을 준다 75%

전체 응답자의 86%는 흡연을 중독으로 인식하며, 80%는 치료와 지원이 필요한 문제라고 본다. 흡연이 국민건강보험 등 사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은 75%, 직장에서 생산성 저하 요인이 된다는 응답도 61%이다. 10명 중 8명(82%)은 흡연자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며, 공공장소에서는 비흡연자의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응답도 85%로 높아, 흡연자보다 비흡연자 중심의 권리 보호를 지지하는 여론이 강하다.

반면 ‘흡연은 개인의 선택이므로 자유롭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응답은 50%로 절반 수준이다. 특히 흡연자의 경우 ‘흡연은 중독’이라는 인식(70%)과 ‘사회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응답(54%)이 비흡연자(각각 90%, 81%)에 비해 낮아, 흡연 여부에 따른 인식 격차를 확인할 수 있다.

**흡연은 습관이 아니라 중독이다 86%, 흡연자 70% vs 비흡연자 90%**  
**흡연은 사회적 재정에 부담을 준다 75%, 흡연자 54% vs 비흡연자 81%**

(단위: %)



질문: 귀하는 평소 흡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비고: 그렇다(매우+대체로 그렇다) 응답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 4 금연 정책 방향

### 선호 금연 정책 1위는 '금연구역 확대'

### 흡연 여부·성별·세대별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금연 정책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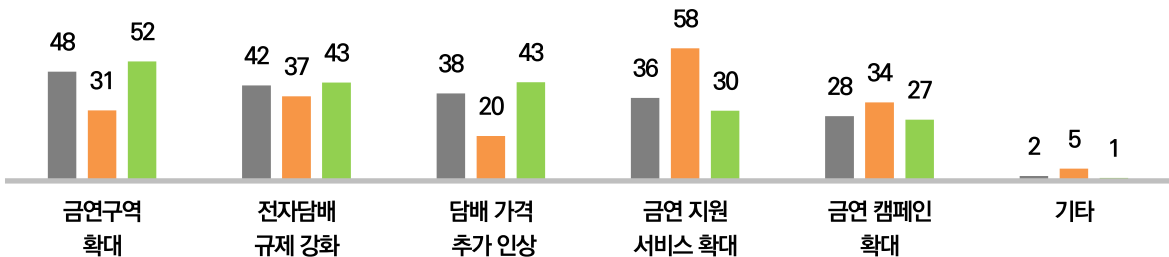
앞으로 강화되었으면 하는 금연 정책으로는 '금연구역 확대'가 48%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는 '전자담배 규제 강화'(42%), '담배 가격 인상'(38%),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36%), '금연 캠페인 확대'(28%) 순이다. 흡연자는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가 58%로 가장 높은 반면, 비흡연자에서는 '금연구역 확대'가 52%로 가장 높다. '담배 가격 인상'에 대해 비흡연자의 43%가 지지한 반면, 흡연자에서는 20%에 그친다. 흡연자는 지원 중심의 정책을, 비흡연자는 규제 중심의 정책을 선호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선호 금연 정책 1위는 '금연구역 확대' 48%

(단위: %)

흡연자 선호 금연 정책은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가 58%로 가장 높아  
반면, 비흡연자 선호 금연 정책은 '금연구역 확대'가 52%

■ 전체 (1000명) ■ 흡연자 (208명) ■ 비흡연자 (792명)



질문: 향후 금연과 관련하여 강화되었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기준으로 응답 제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성별로는 여성(46%)이 남성(37%)보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에 더 우호적이며, 연령별로는 18~29세의 절반 이상이 '금연구역 확대'(54%)와 '담배 가격 인상'(51%)을 답해 규제 강화에 지지하는 경향을 보인다. 40대는 '전자담배 규제 강화' 선호 응답이 51%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다.

**여성(46%)이 남성(37%)보다 '전자담배 규제 강화'를 선호**  
**18~29세 연령층 '금연구역 확대(54%)'와 '담배 가격 추가 인상(51%)' 과반 이상**

(단위: %)

사례수 (명)		금연구역 확대	전자담배 규제 강화	담배 가격 추가 인상	금연 지원 서비스 확대	금연 캠페인 확대	기타
전체	(1,000)	48	42	38	36	28	2
성별							
남자	(495)	45	37	39	37	29	3
여자	(505)	50	46	37	35	27	1
연령							
18~29세	(153)	54	33	51	31	16	4
30대	(150)	47	37	57	31	17	3
40대	(173)	45	51	39	31	22	3
50대	(195)	48	44	30	40	30	2
60대	(178)	42	46	26	42	39	1
70세 이상	(151)	50	36	30	39	43	0

질문: 향후 금연과 관련하여 강화되었으면 하는 정책은 무엇입니까?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순서대로 2가지를 응답해 주십시오.

비고: 복수응답, 1+2순위 응답 기준으로 제시함

응답자 수: 1,000명

조사기간: 2025. 6. 13. ~ 16.

한국리서치 정기조사 여론 속의 여론(hrcopinion.co.kr)

이번 조사 결과는 흡연 행태와 인식이 세대와 성별, 사회경제적 배경 등에 따라 다층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금연 정책 또한 보다 정교한 접근이 요구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특히 금연구역 확대나 전자담배 규제 등 비흡연자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동시에, 흡연자에게 실질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병행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아울러 전자담배 사용 증가, 여성과 청년층의 흡연 증가, 흡연자와 비흡연자 간 중독에 대한 인식 격차 등 최근 변화된 흡연 양상을 반영한 맞춤형 금연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

## 조사개요

구분	내용
모집단	• 전국의 만 18세 이상 남녀
표집틀	• 한국리서치 마스터샘플(25년 5월 기준 전국 97만여 명)
표집방법	• 지역별, 성별, 연령별 비례할당추출
표본크기	• 1,000명
표본오차	• 무작위추출을 전제할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집오차는 $\pm 3.1\%p$
조사방법	•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url 발송)
가중치 부여방식	• 지역별, 성별, 연령별 가중치 부여(셀가중) (2025년 3월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응답율	• 조사요청 26,610명, 조사참여 2,063명, 조사완료 1,000명 (요청대비 3.8%, 참여대비 48.5%)
조사일시	• 2025년 6월 13일 ~ 6월 16일
조사기관	• (주)한국리서치(대표이사 노익상)

한국리서치 주간리포트

# 여론속의 여輿론論

HankookResearch

